

◆ 특 집 ◆

IMF 자금 지원하의 수출전망과 대책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내용으로 회원업체의 업무에 참고토록 게재하는 것입니다.」

I. IMF 자금지원하의 수출여건 변화

1. 전반적인 수출 여건 변화

- 1997년 8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전례없이 개선되고 있음.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가 높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크게 상승해 과거 '80년대 후반이나 1993~'95년 4월까지의 엔고기에 누렸던 반사이익보다 더욱 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입장에 있음.
 - 더구나 최근과 같은 환율상의 비교우위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과 일본엔화의 절하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1998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출가격경쟁력 개선을 바탕으로 수출 총력전을 펴야 할 시점으로 평가됨.
- 그러나 IMF자금지원 이후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대출 기피와

은행들의 달러화 보유 감소로 기업들의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워져 수출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수출증대의 호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구나 국내경기 침체와 고금리 및 자금난으로 견실한 수출기업들의 부도나 도산이 잇따르고 있어 수출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현재 정부와 각 업계는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수출의 호기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출시장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특성에 맞는 보다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 대책은 초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되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환율

- 1995년 7월말 756원선을 저점으로 상승하여 1997년 평균 951원을 나타냈던 원/달

환율은 1998년 상반기중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평균 1,450원 전후를 나타낼 것이나, 하반기에는 외화유입 회복과 경상수지 개선으로 하락세를 나타내 평균 1,150원 전후를 기록할 것임. 이에 따라 1998년 연간 환율은 전년보다 37% 정도 상승한 1,300원 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1999년 이후에는 국내경제의 구조조정 진전에 따른 대외신인도 회복,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나타내, 평균환율이 1999년 1,200원선, 2000년 1,100원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엔/달러 환율은 1995년 4월 80엔선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1997년 마감 환율이 129.9엔을 기록했고, 1998년 들어 1월 중순 현재 134엔선을 기록하고 있음.
- 엔/달러 환율은 1998년중 일본의 경기부진과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상승세를 나타내 연평균 137엔선을 기록할 것이며, 1999년에도 연간 140엔선까지 상승

세를 지속할 것임. 다만 2,000년에는 일본의 경기회복과 무역흑자 누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30엔선으로 절상될 것으로 보임.

- 1996년 말의 729원에서 1997년 말 1,305원선으로 크게 상승한 원/100엔 환율은 1998년 상반기중 1,100원선을 나타내다 하반기에는 800원선으로 떨어지고 연평균으로는 950원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1999년과 2,000년에는 850원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1997년 7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도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동남아국가들의 통화가치는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나 하락세를 지속하여 우리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더구나 주변국가들의 통화가치 폭락에 영향을 받아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우리수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추이(월평균)

구 분	96.12	97. 6	7	8	9	10	11	12	96.12 대비 상승률(%)
원 화	838.0	889.4	890.5	895.9	909.5	921.8	1,025	1,502	79.2
엔 화	113.5	114.1	114.9	113.6	120.9	121.1	125.0	129.6	14.2
대만 달러화	27.5	27.88	27.99	28.71	28.61	29.55	31.58	32.33	17.6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2.52	2.51	2.57	2.72	3.02	3.27	3.36	3.75	48.8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350	2,424	2,425	2,427	3,063	3,578	3,447	3,729	101.2
태국 바트화	25.57	24.35	30.11	32.37	34.44	36.99	38.99	43.76	71.6
필리핀 페소화	26.29	26.37	27.30	29.21	32.45	34.45	34.32	37.05	41.4

3. 자금시장

- 현재 환율면에서는 수출여건이 사상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국내 자금사정이 매우 팍박하여 이러한 호조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IMF 자금지원 이전부터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악화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자금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은행들이 IMF의 BIS 기준 충족요구에 부응하느라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기피함은 물론, 기대출자금의 조기상환을 서둘러 수출기업의 자금난이 전례없이 심화되었음.
- 기업들의 은행을 통한 수출환어음 네고와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 관련 신용이 마비증상을 일으키면서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특히 수출환어음의 경우 유전스어음, D/A(인수도 조건) 뿐 아니라 일람 불어음의 할인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네고를 해주는 경우에도 외화의 조기매각을 조건으로 제시받고 있어 환전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무역업계의 채산성 압박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은행들의 수입신용장 개설이 제대로 되

지 않아 수입원자재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과 수출에 증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출용원자재 부족에 따라 수출중단사례가 발생하면서 해외바이어들의 이탈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확대와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에 대한 독려 등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로 일선 창구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임.
- 이러한 시중의 자금경색 현상과 아울러 시중금리가 급상승하여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IMF측은 외환시장 안정을 중시하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IMF측은 외환시장 안정을 중시하여 고금리구조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수출에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4. 세계경기

- 1997년 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세계경제는 1998년에는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 금융위기에서 유발된 디플레이션 현상이 여타 지역으로 파급되어 투자와 교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7%로 낮아질 전망이다.

- 세계경기의 둔화가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과거와는 달리 1998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이는 1998년 세계경기의 둔화가 주로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동남아의 경기둔화 내지 침체에서 유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아세안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기둔화는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미 1997년 10월 이후 우리나라의 대 ASEAN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대일 수출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 또 미국의 경기둔화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중국, 아세안 등 동아시아 국가들 및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들과 우리나라 수출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그동안 물량위주의 수출을 해온 국내기업들로서는 세계적인 수출단가 하락속에 세계경제의 감속성장으로 물량증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2중의 어려움에 직면해야 할 형편임.

- 한국, 인도네시아 등 IMF의 자금지원을 받은 국가와 일본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동아시아 경제는 1999년부터 회복

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0년에는 다시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됨.

5. 세계교역환경

- 1997년 세계교역은 개도국의 교역(수입물량 기준)이 둔화된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체제전환국의 교역규모는 경기회복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음. 그러나, 1998년에는 세계교역 신장세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둔화되어 1997년보다 1%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일본경제도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수입물량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개도권의 경우도 외환·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기후퇴로 내수와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남미지역도 환율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외환위기 조짐이 나타나는 등의 경기둔화 요인으로 수입수요 증가폭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 한편, WEFA 전망치에 따르면 1997년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세계수출물량 증가율은 1998년과 1999년에는 미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세계 수출가격은 1997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998년과 1999년에는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이는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재고조정 진전으로 가격회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II. 수출전망

1. 전망의 전제

- 여기서는 각 지역별 수출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수출을 전망해 봄.
- 본 분석에서 수출전망을 하는데 있어 수출관련 변수로서 세계경제성장률, 원화환율 및 엔화환율,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자물가 상승률들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의 변동이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가격과 수출물량, 그리고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봄.
- 이들 설명변수에 대한 전망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음.
 - 원/달러 환율은 1998년 상반기에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달러당 평균 1,450원선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외화유입 회복과 경상수지 개선으로 하락세를 나타내 평균 1,150원선 전후를 기록, 1998년 연간으로는 회복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소폭이나마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엔/달러 환율은 1998년과 1999년에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해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0년경에 이르러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다고 가정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하락하나 이들 지역의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1999년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원화환율의 급등으로 1998년에는 IMF와 합의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9% 수준까지 상승하나, 1999년 이후 원화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2000년에는 4% 수준으로 다시 하락한다고 가정하였음.
- 환율 및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토대로 200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및 지역별 수출증가율에 대한 전망은 다음 표와 같음.

전망의 전제

년 도 별	원/달러 평균환율	엔/달러 평균환율	세계경제 성장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1997	950	121	3.0	3.4
1998	1,300	137	2.7	9.0
1999	1,200	140	2.9	5.5
2000	1,100	130	3.0	4.0

우리나라 총수출 및 지역별 수출 전망

(단위 : 억달러, %)

	1996	1997	1998	1999	2000
미 국	216.7(-10.2)	215.6(-0.5)	230.1(6.7)	240.4(4.5)	250.3(4.1)
일 본	158.0(-7.5)	149.3(-5.5)	145.0(-2.9)	148.6(2.5)	154.1(3.7)
E U	153.3(-6.0)	169.6(10.7)	198.8(17.2)	219.3(10.3)	235.8(7.5)
아 세 안	202.0(12.7)	206.2(2.1)	195.9(-5.0)	206.3(5.3)	237.3(15.0)
중 국	113.8(24.4)	138.8(22.0)	163.3(17.6)	183.2(12.2)	221.1(20.7)
(홍 콩)	111.3(4.2)	118.2(6.2)	126.9(7.4)	134.6(6.0)	147.1(9.3)
(대 만)	40.0(3.2)	46.4(16.0)	53.5(15.2)	63.4(18.6)	75.0(18.3)
중 남 미	89.6(21.6)	90.8(1.3)	100.2(10.3)	115.9(15.7)	136.6(17.8)
중 동	57.2(17.2)	54.2(-5.3)	57.2(5.6)	60.2(5.3)	63.9(6.2)
러 시 아	19.7(39.0)	16.9(-14.2)	20.0(18.3)	23.6(18.0)	29.0(22.9)
총 수출	1,297.1(3.7)	1,367.2(5.4)	1,465.6(7.2)	1,577.0(7.6)	1,751.7(11.1)

주 : ()은 증가율

- 이를 살펴보면, 1998년 우리나라 수출은 원화환율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그 이유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첫째, 원화환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일본, 동남아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의 환율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하의 효과가 일부 상쇄됨.
 - 둘째, 우리나라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과 ASEAN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도 1998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되어 원화절하에 따른 수출증대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셋째, 금융불안으로 인한 수출시스템의 마비와 수출기업 도산에 따른 수출여력 감소를 들 수 있음. BIS규제강화 이후

기업들이 은행을 통한 수출환어음 내고와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 관련 신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도산도 수출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1998년 수출은 1/4분기 중에는 외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나, 2/4분기 이후에는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순조로운 외화차입과 외국인간금융기관들과의 외채상환 연장, 그리고 최근의 기업대출 재개 등으로 외환, 금융불안이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1999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진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다시 늘어나 금년보다는 신장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엔화가 절하추세를 지속할 경우 대일경쟁력의 하락으로 수출증가율은 내년에도 7%대의 한 자리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가 IMF 자금지원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에는 수출이 다시 11%대의 두자리수의 높은 신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그 이유로서 첫째, 세계경제가 다시 3%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그 이유로서 첫째, 세계경제가 다시 3%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일본, 동남아 경제의 회복, 셋째, IMF 자금지원 체제하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편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1998년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의 급상승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6%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또 대EU수출도 EU경제의 회복으로 두자리 수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반면, 일본과 ASEAN 등 최근 외환,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998년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인데다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도 원화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어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수출은 원화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제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중동지

역 및 외환시장 불안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경우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예상외로 큰 폭의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Ⅲ. 수출촉진 대책

1. 초단기 대책

(1) 수출자금지원의 활성화

- **수출환어음의 네고 활성화** : 현재 금융기관들은 외화부족과 BIS기준 충족이라는 규제 때문에 수출환어음의 네고나 수입신용장 개설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은행의 달러화 부족에 따른 네고 회피를 타개하기 위해서 긴급한 수출관련 네고의 경우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시중 은행에 할당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음.
 - 일람불 어음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매입하도록 독려하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그리고 주택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이 자기자본비율의 여력이 있거나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들의 유전스어음 네고를 확대해 주도록 독려함.
- **신용보증기금의 확대 지속** : BIS 규제강화 이후 신용도가 낮고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을 앞으로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은 위험자산의 가중치가 10%로 낮으므로 은행의 BIS기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향상 대책** : 최근 시중은행들이 BIS기준 충족을 위해서 수출환어음의 네고나 신용장 개설, 대출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향상 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점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선조치에 대한 내용이 투명하게 공표되어야 하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기 시정조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함. 이는 은행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가능케 하며,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난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임.
 -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공적 자금의 투입을 확대하며, 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뿐 아니라 우선주 발행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은행들의 자산압축을 위해

서 예대상계방식의 적용을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임.

- **한은의 신축적인 통화공급**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충족에 따른 시중 자금경색현상을 막고 기업도산 방지를 위하여 한은이 물가, 성장률, 유통속도하락 등을 고려하여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애로 타개

- 현재 수입신용장 개설 부진 등으로 원자재 조달난이 심화되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수입대행의 효율화, 원자재 수입관세의 삭감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조달청의 수입대행 개선** : 최근 조달청이 원자재 수입대행을 해주고 있으나, 과거에 주로 정부조달 물자나 중소기업용 소규모 원자재 수입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여 수입대행에 시일이 소요되고 수입실수요자 증명 등과 같은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수반되어 업계가 당면한 원자재 고갈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수입경험이 많은 대표 업체로 하여금 원자재 수입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 업체에 정부나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현재 일람불 신용장이나 유전스

신용장을 불문하고 수수료를 1%씩 부담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일람불 신용장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삭감해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철폐** : 현재 원화환율이 급등하고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있으므로 일부 기초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음.
- **원자재 통관절차의 개선** : 현재 원자재의 입항전 통관절차는 부산 등 2곳의 항구세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내륙지 세관으로 확대하여 원자재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함.

2. 중장기대책

(1) 종합적인 수출 성과의 점검

- 정기적으로(매월 혹은 매분기) 수출동향 및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수출전략회의(가칭)를 매월 개최함.
- 무역의 날에 시행되는 수출포상에서 단순한 수출액 뿐만이 아니라 외화가득률이나 부가가치율 등도 고려하거나 혹은 외화가득률이나 부가가치율만을 고려한 포상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임.

(2) 효율적인 수출 지원체제의 구축

-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수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업계, 관련단체 등의 유기적인 hub & wheel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통상산업부, 외무부, 재정경제원 등 국내 통상관련 부처, 실무 부서간의 해외시장 관련 기능별, 지역별 협력과 분담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가칭 수출촉진조정위원회(Export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통상외교의 강화

- 대통령 이하 모든 경제각료들이 해외 세일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무부와 안기부의 조직 및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사절단 혹은 무역사절단의 해외파견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절단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절단의 목적, 참여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

(4) 지방정부의 통상능력 제고

- 중앙정부 인력의 지원 등으로 지방정부의 무역통상정책 수행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더하여 국가수출전략회의(가칭)를 지방에서 개최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수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의욕을 북돋우는 것도 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5) 수출관련 금융 시스템의 정비

- 선물환 및 금융선물거래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이 무역 결제에 따르는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함께 수출선수금의 대응기간,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기간 등과 같은 수출관련 외환규제를 완화하여 수출관련 외환거래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고 보험종목을 조정하여 수출보험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동구권이나 개도국에 대한 수출지원효과를 제고하여야 함.

(6) 수출기업화의 강화

- 최근 고환율의 좋은 수출여건을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현재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수출기업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기술개발, 지역개발 등을 활용한 육성책 강화

- WTO 발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보호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전자상거래의 촉진

-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9) 시장 및 경제 정보의 체계화

- 동구권, 저개발국 등은 물론 선진국의 시장 및 경제 정보, 국제통상협상의 내용과 진전 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환경, 투자 등과 같이 국제통상협상과

관련한 내용 중 일반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치에 대해 협상타결 이전에 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10)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업이 고유상표, 수출의 확대, 해외 마케팅 노력의 강화 그리고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11) 기업 세계화への 대응

-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수출로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계속 추진,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습득과 국내 생산체제의 효율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